

# 父母·靑少年子女간의 대인거리·심리적거리·의사소통이 家族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Personal Space, the Psychological Distance  
and the Communication between Adolescent Children and their  
Parents 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상지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학과

부교수 : 趙 殷 卿

Dept. of Home Economics

Sangji University

Associate Prof. : Eun Kyoung, Cho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 徐 炳 淑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Prof. : Kyong Sook, Seo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들이 가족의 응집성과 가족의 적응력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개방성은 부모의 연령, 자녀의 성별, 在學校別에 의하여 부모와 자녀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들이 지각하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다. 이는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과 변화대처능력은 부모와의 대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자녀와의 갈등이나 문제해결에 있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일차적인 기능을 하게 됨을 반영한다.

셋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중에서도 특히 부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변화의 시기인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된다.

## I. 서 론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면 신체적, 정신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며, 이 시기의 발달적 특징인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심리적 독립욕구의 증가로 인해 부모로부터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서봉연·유안진, 1984), 이제까지 자녀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의

존하던 기존의 관계는 큰 전환기를 맞게 된다. 그리하여 가정내에서 애착과 의존으로 맺어지던 부모와 자녀관계는 분리와 독립을 경험하면서, 내적 긴장과 정서적 갈등을 겪게 된다.

Minuchin(1974 : 63)은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시기에 가족내에서 겪는 변화를 가장 일반적인 발달상의 스트레스로 지적하였다. 이 시기의 발달적

위기는, 개별적인 자아와 독립적인 인격체를 인정함으로써 긴밀하고 역동적인 가족체제로 성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나, 그렇지 못할 때는 갈등과 긴장이 잠재되어 있다가 이후의 발달단계로 이행되면서 문제상황을 고조시키고 위기를 증폭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가족생활단계상 가족의 기능점점이 필요한 시기이다. 가족의 응집성과 가족의 적응력은 바로 이러한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가족기능을 검토하는데 있어 유용한 개념이다.

가족내의 응집성을 발전시키고 유지 또는 변화시키는 것은 가족내의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효과적인 가족의 적응은 메시지체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가족원들간의 공유된 의미를 통하여 가능해진다(Galvin & Brommel, 1986 : 14-18). 의사소통은 특히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간의 대립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과 관련하여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개념에 관심을 갖는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들이 가족의 응집성과 가족의 적응력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인거리와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을 관심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련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규명하고 고찰하며, 이 세 변인들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대인거리

공간은 생태적 차원의 한 변인으로 가족 상호작용을 조명할 때, 가족내의 대인관계와 非人的 환경요인과의 상호작용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Hayduck(1978)은 대인거리를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게 되면 불안감을 야기시키게 되는 영역으로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그들 주변에 유지하고자

하는 공간적 범위”로 정의내렸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 우호성 정도에 따라 공간적 배열에서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대인거리와 관련된 연구와 이론적 논의들은 사회심리학분야, 가족관계와 임상적 측면, 가족치료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Crane & Griffin, 1983 ; Crane et al., 1987 ; Larson & Lowe, 1990). Hayduck(1978)은 대인거리에 대한 네가지 이론 즉, 친밀성 평형이론, 보호이론, 사회학습이론, 자극이론을 제기하였으나, 이 이론들에 대한 경험적 검증과 수정작업을 통하여 보다 포괄적인 이론적 관점 즉, 평형이론, 기대이론, 귀인이론 등을 제시하였다.

Melson(1980)은 각 가족구성원들이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신체적, 정서적 친밀성에 대한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인적 욕구는 특별한 상황, 분위기, 발달적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각 가족들은 심리적, 물리적 양면에서 집단적으로 선호하는 대인거리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사회심리학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연구영역인 대인거리는 부부관계 측정에 유용한 대인적 행동차원인 것으로 밝혀졌다(Crane & Griffin, 1983 ; Hill et al., 1982). 또한 서로 좋아하는 가족원들은 더 가까이 위치를 정하므로 대인거리는 가족내에서 관계와 갈등을 진단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Crane et al., 1987). Larson과 Lowe(1990)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청소년간의 대인거리는 나이든 청소년의 경우 보다 멀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나이든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보다 가족으로부터 더 큰 자율성과 분리를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상황은 가족의 응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 2. 심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란 가족내 다른 가족원에 대한 대인지각 또는 사회적 지각경험으로서 다른 가족원에게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나 의미(김재은, 1974)를 뜻한다.

가족내의 심리적 거리를 연구한 Gerber와 Kaswan

(1971)은 한 가족내에서의 연관성의 정도는 가족원간의 심리적 거리와 지향의 합수로 반영된다고 하였다. 정양은(196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구성원의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정신신경증 집단과 정상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한국가족의 심리적 거리를 연구한 대표적인 김재은의 연구(1974)는 20세에서 70세까지의 성인남녀 230명을 대상으로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12개의 가족개념과 10개의 형용사 척도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가족에 대해 부여하는 심리학적 의미를 가족구성원간의 지각, 태도를 통해 추출하였다.

윤진과 조석미(1980)는 1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가족에 대하여 지각하는 의미구조와 가족간의 거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노영남(1882)의 연구는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고 그 관련변인을 고찰하였다. 가족성원의 심리적 거리를 연구할 때는 집단역할의 입장에서 다를 수도 있고, 대인지각의 입장에서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대인지각의 차원에서 많이 다루어 왔다.

###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사람들간에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가족내에서의 의사소통을 부모자녀간에 초점을 맞추어 보게 되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반향적 과정(민하영, 1991)”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서로간의 가치전달과 의사전달을 통한 내적 긴장의 완화, 관계확인에 따른 자신감이나 안정감의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특히 청소년기 자녀에게 있어서는 의사소통이 인성이나 행동발달 등에 관계되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기존의 부모와 자녀관계의 변화에 따른 갈등이나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대화의 필요성, 내용과 정도, 대상, 태도 등을 조사하여 자녀의 성별, 부모의 성별,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다(김진숙·유영주, 1985; 오연옥, 1987; 윤정명, 1983; 이석경, 1987; 이향연, 1986; 장근화, 1980; 정혜영, 1986).

사회인구학적 특성이외에 자녀의 언어유창성, 부모의 양육태도 등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청소년들이 언어적 유창성이 높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 때, 부모와의 대화가 활발해진다(옥선화, 1985).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직업유무, 대화시간, 대화욕구를 들 수 있다(김경화, 1989; 김순옥, 1990; 김진희, 1989; 백인숙, 1987; 이정우·김규원, 1989).

## 4.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 1) 가족의 응집성

가족의 응집성은 가족성원들이 그들 가족과 분리되거나 연관되는 정도이다. 즉, “가족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를 말한다(Olsson et al., 1982).

응집성 차원을 진단하고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8가지 구체적 개념들은 가) 가족성원간의 정서적 유대, 나) 가족외부환경과 하위체계들간의 경계, 다) 연합이 이루어지는 대상과 정도, 마) 가족의 공동공간과 개인의 사적공간의 허용정도, 바) 가족의 공동친구와 개인의 사적친구의 인정, 사) 의 사결정의 유형, 아) 가족의 전체오락활동과 개인의 활동보장정도이다. 가족의 응집력 차원은 연결, 분리되는 정도에 따라서 과잉분리, 분리, 연결, 그리고 매몰 등의 네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응집의 개념이 가족생활의 이해에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분야의 학자들이 인정한 바이다. Hess와 Handel(1959)은 “분리와 연결의 패턴을 형성하려는” 가족의 욕구를 언급하였고, Bowen(1978)과 Minuchin(1974)은 응집성과 유사한 개념인 “자아

분화”와 “경계선”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또한 Beavers(1977)는 “구심적-원심적”이라는 비슷한 개념을 사용하였다.

### 2) 가족의 적응력

가족의 적응력이란 가족체계가 유연하고 변화할 수 있는 정도이며, 가족체계가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그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Olson et al., 1982).

적응력 개념을 진단하고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6가지 구체적 개념들은 가) 가족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 나) 리더쉽(통제)의 유형, 다) 부모의 자녀훈육방식, 라) 가족성원들간의 협상능력, 마) 역할확립 및 역할분담, 바) 가족규칙의 명시성 및 융통성이다. 이러한 가족의 적응력 차원은 경직, 구조적, 융통적, 혼돈 등 네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 3)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과 의사소통의 관계

가족내에서의 의사소통은 응집성, 적응력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Galvin과 Brommel(1986)은 가족내의 응집성은 가족원들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또한 의사소통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가족원들이 응집성을 발전시키고 유지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의사소통을 통해서라고 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은 가족의 적응이라는 기능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효과적인 적응은 가족의 메시지 체계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적응이 가능한가가 분명해지고 가족원들의 행동과 체계전체로서의 행동이 규제된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선행연구와 예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은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부모와 청소년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적응력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조사도구

### 1) 대인거리 척도

Hayduck의 연구(1978 : 1983)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부모와 자녀간의 거리를 변별할 수 있는 7가지 유형의 그림을 작성하여, 7가지 중 하나의 그림을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7단계의 그림에는 대인거리가 적은 즉, 거리가 가까운 쪽에서부터 먼 쪽으로 1점에서 7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개인별 점수범위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여 각각 1점에서 7점까지이다. 자료분석에 있어서는 반대로 재점수화하여 점수가 많을수록 대인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산출된다.

### 2) 심리적 거리 척도

김재은(1974)이 개발한 意味微分法(Semantic Differential method : SD)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거리 척도는 아버지에 대하여 10문항, 어머니에 대하여 10문항, 형제 중 한 사람에게 대하여 10문항으로 총 30문항이다. 사용된 심리적 거리 척도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에 대한 느낌을 7단계의 눈금위에 표시하는 리커트방식을 택하였다. 10개의 문항들은 평가요인 4개, 역능요인 3개, 활동요인 3개로 구성되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한 사람에게 대하여 각각 10개의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는데, 각 반대 형용사를 양극으로 갈라서 배치하고 그 형용사말에 눈금을 제시했다.

###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PACI :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자녀용 질문지(Adolescent Form)를 사용하였다. 자녀용 질문지는 총 40문항으로 아버지와 자녀간(20문항), 어머니와 자녀간(20문항)의 의사소통에 있어 ‘개방성의 정도와 문

제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2개의 하위척도가 無選的으로 제시된다.

#### 4)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력

Olson과 그의 동료들(1982)이 개발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평가 척도(FACES II :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를 우리 실정에 맞게 문장표현을 수정한 뒤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응집성을 측정하는 문항 16개, 적응력을 측정하는 문항 14개로 총 문항수는 30개이다.

### 3.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7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거의 반반이며(50.0% : 49.9%), 국민학생 27.1%, 중학생 27.9%, 고등학생 44.8%로 국민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이 더 많다.

조사대상자 부모의 특성은 아버지는 50대가 많은데(19.7%) 비하여, 어머니는 30대가 더 많았다(28.4%), 어머니의 경우 20대가 1명있고, 아버지는 70대가 1명있었다. 교육수준은 아버지는 대학교 36.6%, 어머니는 고등학교가 4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는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의 순인데, 어머니는 대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순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무학이 2명있었다. 본 조사의 부모의 교육수준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은 상업.자영업이 가장 많고 다음이 사무직, 행정관리직, 기술.서비스직, 전문직, 단순노무직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무직이 58.6%로 반을 넘었으며, 취업한 경우에는 상업.자영업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율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소득수준은 상 8.9%, 중 86.5%, 하 1.0%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에 속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주관적 계층의식은 지나치게 높은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 자료수집

예비조사는 1992년 5월 4일부터 1992년 5월 9

일에 걸쳐 관악구 지역에 있는 남.녀 고등학교 각각 2개 학급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2년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선정된 학교에서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남녀학생 1,15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응답작성 내용을 검토한 결과 최종분석에는 1072부가 사용되었다.

#### 2) 분석방법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고,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부모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연구문제 1)

#### 1) 부모변인과 자녀변인에 따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

부모변인에 따른 청소년 자녀와의 대인거리를 일원분산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의 차이는 연령( $P < .01$ ), 소득수준( $P < .001$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교육수준,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청소년 자녀는 아버지의 연령이 낮은 집단과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아버지의 대인거리가 더 가까운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에서는, 교육수준( $P < .01$ )과 취업여부( $P < .05$ )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을 경우 어머니와의 대인거리가 더 가깝다고 지각했다.

자녀변인에 따른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대인거

표 1. 父母변인에 따른 父母와 청소년 子女간의 대인거리

부모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父	연령	39세이하	106	5.23	1.69	4.70**	a
		40-49	595	4.74	1.95		ab
		50-59	205	4.37	2.01		b
		60세이상	124	4.73	1.89		ab
	교육수준	국졸이하	36	4.67	2.11	1.99	
		중졸	108	5.00	1.89		
		고졸	380	4.79	1.92		
		대졸이상	376	4.54	1.96		
	소득수준	상	517	4.92	1.84	7.06***	a
		중	421	4.57	2.00		b
		하	64	4.14	2.06		b
	직업	단순노무직	62	5.11	1.57	2.18	
		서비스·상업	475	4.69	1.96		
		사무직	231	4.77	1.94		
		전문직·관리직	195	4.45	1.99		
	母	연령	39세이하	302	5.59	1.74	0.94
40-49			591	5.60	1.67		
50-59			42	5.76	1.51		
60세이상			116	5.34	1.79		
교육수준		국졸이하	67	5.54	1.63	2.76**	a
		중졸	186	5.27	1.96		a
		고졸	470	5.61	1.63		a
		대졸이상	192	5.75	1.51		b
취업여부		유	350	5.40	1.81	5.28*	a
		무	616	5.67	1.62		b

\* p<.05 \*\* p<.01 \*\*\* p<.001

리의 차이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父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변인은 자녀의 在學校別이며 (P<.001),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연령의 효과를 반영하는 在學校別만이 父와의 대인거리 지각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 성별과 관계없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父로부터 대인거리를 멀게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母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는 성별(P<.001), 在學校別(P<.01)이었다. 즉 딸이, 그리고 저학년 일수록 母와의 대인거리를 가깝게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는 선행연구에서 대인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로 제시된 성별이나 연령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Melson, 1977; Hayduck, 1983), 교육수준,

표 2. 자녀변인에 따른 父母와 청소년子女간의 대인거리

		父					母						
자녀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성 별	남	513	4.62	1.98	2.23		532	5.37	1.77	16.06***	a		
	여	516	4.80	1.89			527	5.78	1.60			b	
在學校別	국민학교	285	5.35	1.64	32.19***	a	288	5.82	1.64	5.69***	a		
	중 학교	294	4.85	1.86			b	297	5.61			1.64	ab
	고등학교	449	4.22	2.03			c	464	5.40			1.75	b

\*\*P<.01 \*\*\* P<.001

소득수준, 그리고 직업 등은 대인거리에 관계되는 다른 심리·정서적인 과정들을 매개로 하여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변인 중 在學校別은 모두 부모와의 대인거리와 관계있었으며, 성별은 母와의 대인거리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2) 부모변인과 자녀변인에 따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심리적 거리

부모변인별로 청소년 자녀와의 심리적 거리에 차이를 보인 변인은 표 3에 제시되었다.

자녀와의 심리적 거리에 차이를 보인 부모변인 중 父의 경우는 연령(P<.001), 소득수준(P<.001)이 유의하고 교육수준이나 직업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母의 경우는 연령(P<.05), 교육수준(P<.01), 취업여부(P<.01)가 차이를 보였다. 즉, 父의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이 父를 심리적으로 가깝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母의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은 고졸인 경우,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어머니를 심리적으로 가깝게 지각하고 있었다.

자녀변인에 따라 부모와의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자녀변인에서는 부모 모두에서 자녀의 성별(父 P<.05, 母 P<.001), 자녀의 在學校別(父 P<.01, 母 P<.05)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딸이,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와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의 차이가 그들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있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노영남(1982)의 연구와 다소 상반되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

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결과와는 일치한다.

### 3) 부모변인과 자녀변인에 따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변인별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들은 표 5에 제시되었다.

父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연령(P<.001), 소득수준(P<.001), 직업(P<.05)이고,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父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에서 의사소통 수준이 가장 낮았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났으며, 父의 직업이 사무직일 때, 가장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높았다.

母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연령(P<.05)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녀변인에 따른 父나 母와의 의사소통의 차이는 표 6에 제시되었다.

자녀변인 중 성별(父 P<.01, 母 P<.001)이나 在學校別(父 P<.001, 母 P<.001)은 父나 母와의 의사소통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즉 딸이,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는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다가(장호선, 1986; 김진희, 1989; 김순옥, 1990), 나이가 들면서, 즉 10대 후기에 이르는 청소년기에서 부모와의 의사

표 3. 父母변인에 따른 父母와 청소년子女간의 심리적 거리

부모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부	연 령	39세이하	104	53.19	6.76	11.62***	a
		40-49	593	50.96	8.03		ac
		50-59	204	48.14	8.31		bc
		60세이상	125	49.42	7.12		abc
	교육수준	국졸이하	36	50.39	8.48	0.15	
		중 졸	109	50.22	6.91		
		고 졸	371	50.68	7.87		
		대졸이상	382	50.78	8.22		
	소득수준	상	522	52.22	7.59	39.49***	a
		중	417	49.11	7.60		b
		하	56	44.00	9.70		c
	직 업	단순노무직	62	49.18	8.41	1.56	
		서비스·상업	471	50.24	7.82		
		사 무 직	234	50.91	7.43		
		전문직·관리직	191	51.29	8.74		
	모	연 령	39세이하	299	52.54	6.72	3.37*
40-49			585	51.65	7.28	ab	
50-59			43	50.49	8.78	ab	
60세이상			119	50.24	7.71	b	
교육수준		국졸이하	66	50.29	8.71	4.40**	ab
		중 졸	185	50.53	6.63		a
		고 졸	466	52.42	6.80		b
		대졸이상	190	52.31	7.89		ab
취업여부		유	346	51.18	7.47	3.52**	a
		무	612	52.09	7.17		b

\* p<.05 \*\* p<.01 \*\*\* p<.001

표 4. 子女변인에 따른 父母와 청소년子女간의 심리적 거리

자녀 변인	구분	父					母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성 별	남	509	49.88	7.98	4.97*	a	526	50.71	7.14	19.70***	a
	여	516	50.98	7.96		b	519	52.69	7.28		b
在學校別	국민학교	280	52.75	7.49		a	282	52.54	7.09	4.52*	a
	중 학교	289	50.58	7.07	20.77**	b	296	52.02	6.10		ab
	고등학교	455	48.92	8.49		c	466	50.97	7.98		b

\*\*p<.01 \*\*\* p<.001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표 5. 父母변인에 따른 父母와 청소년子女간의 의사소통

부모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부	연 령	39세이하	104	69.01	14.35	12.20***	a
		40-49	578	64.21	15.35		ab
		50-59	206	58.72	15.03		c
		60세이상	120	63.68	14.15		ab
	교육수준	국졸이하	34	60.53	13.49	0.75	
		중 졸	102	64.58	13.96		
		고 졸	369	64.34	14.95		
		대졸이상	377	63.60	16.43		
	소득수준	상	512	66.17	15.40	23.03***	a
		중	411	61.72	14.25		b
		하	57	53.88	14.74		c
	직 업	단순노무직	59	60.81	15.95	2.93*	a
		서비스·상업	463	62.88	14.55		a
		사 무 직	228	65.93	14.49		b
		전문직·관리직	193	62.92	16.92		a
	모	연 령	39세이하	288	71.05	13.55	3.58*
40-49			577	69.21	12.60	ab	
50-59			39	66.95	14.17	ab	
60세이상			115	66.81	12.87	b	
교육수준		국졸이하	63	66.92	11.72	2.43	
		중 졸	179	68.06	13.62		
		고 졸	457	70.02	12.94		
		대졸이상	186	70.86	13.57		
취업여부		유	333	68.79	12.07	1.28	
		무	601	69.80	13.63		

\* p<.05 \*\*\* p<.001

표 6. 子女변인에 따른 父母와 청소년子女간의 의사소통

자녀 변인	父						母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성 별	남	500	62.16	14.91	8.02**	a	510	67.70	12.77	17.32***	a
	여	507	64.86	15.35		b	508	71.07	13.07		b
在學校別	국민학교	265	68.98	14.86		a	267	71.25	13.85	7.72***	a
	중 학 교	283	64.50	14.60	34.02***	b	287	70.38	12.49		a
	고등학교	458	59.73	14.71		c	463	67.67	12.68		b

\*\*P<.01 \*\*\* p<.001

소통이 문제가 있게 됨을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딸보다는 아들에게서 이러한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부모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연구문제 2)

가족의 응집성을 종속변수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 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여기서는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의 성별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청소년 자녀 중 아들이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父子 母와의 의사소통과 父와의 심리적 거리와 대인 거리이며, 이 변인들이 가족의 응집성을 설명하는 비율은 약 62%로서 상당히 높다. 청소년 자녀 중 딸이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父子 母와의 의사소통,父子 母와의 심리적 거리, 母와의 대인 거리이다. 그리고 이 변인들이 가족의 응집성을 설명한 비율은 약 62%로 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높다. 그러나, 가족의 응집성을 설명하는 변인에서 아들과 딸의 경우는 다소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父母와의 의사소통, 父와의 심리적 거리는 아들과 딸

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父와의 대인거리는 아들에게만, 母와의 대인거리와 심리적 거리는 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가족의 응집성은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영향이, 딸에게는 어머니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동성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성역할 동일시(Andersen, 1983)에 기반한 정서적 유대감의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의 응집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의사소통으로,父子 母와의 의사소통 모두가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가족내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을 촉진시킨다는 Olso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2)나 Galvin과 Brommel(198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아들(父와의 의사소통  $\beta=.38$ , 母와의 의사소통  $\beta=.33$ )과 딸(父와의 의사소통  $\beta=.37$ , 母와의 의사소통  $\beta=.29$ )에 있어서 모두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보다 가족의 응집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민하영, 1991). 父와의 심리적 거리가 의사소통 다음으로 자녀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점차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근래의 경향을 지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7. 父母와 청소년子女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 (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 $\beta$	R <sup>2</sup>
아들	가족의 응집성	父와의 의사소통	0.38***	0.62
		母와의 의사소통	0.33***	
		父와의 심리적 거리	0.18***	
		父와의 대인거리	0.12***	
		母와의 대인거리	0.06	
		母와의 심리적 거리	0.06	
딸	가족의 응집성	父와의 의사소통	0.37***	0.62
		母와의 의사소통	0.29***	
		父와의 심리적 거리	0.15***	
		母와의 대인거리	0.12***	
		母와의 심리적거리	0.10**	
		父와의 대인거리	0.00	

\*\*  $p < .01$  \*\*\*  $p < .001$

3.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 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적응력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연구문제 3)

가족의 적응력을 종속변수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청소년 자녀 중 아들이 지각한 가족의 적응력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父나 母와의 의사소통과 母와의 심리적 거리와 父와의 대인 거리이며, 이 변인들의 가족의 적응성에 대한 설명력은 50%이다. 또한 딸이 지각한 가족의 적응력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父나 母와의 의사소통, 母와의 심리적 거리, 母와의 대인 거리이며, 설명력은 59%정도이다.

가족의 적응력을 설명하는 변인에서 아들과 딸은 응집성보다 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아들과 딸에서 모두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母와의 심리적 거리는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아들은 父와의 대인거리에서, 딸은 母와의 대인거리에서 영향을 미친다.

가족의 적응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역시 의사소통으로, 父나 母와의 의사소통 모두가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가족내 의사소통망이, 가족의 응

집성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적응력 활성화에 촉매역할을 한다는 Olso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2)나 Calvin과 Brommel의 연구(1986)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아들(父와의 의사소통  $\beta=.44$ , 母와의 의사소통  $\beta=.21$ )과 딸(父와의 의사소통  $\beta=.48$ , 母와의 의사소통  $\beta=.24$ )에 있어서 모두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보다 가족의 적응력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아버지와의 대화는 성장기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아울러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도 청소년 자녀 모두에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부모와의 대화가 청소년기 자녀의 가족에서의 가족기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들이 가족의 응집성과 가족의 적응력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인거리와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을 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련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규명하고 이 세 변인들이 가족의 응집성과 가족의 적응력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8. 父母와 청소년子女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적응력에 대한 독립적 영향력 (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 $\beta$	R <sup>2</sup>
아들	가족의 적응력	父와의 의사소통	0.44***	0.50
		母와의 의사소통	0.21***	
		母와의 심리적 거리	0.13**	
		父와의 대인거리	0.11*	
		父와의 심리적 거리	0.06	
		母와의 대인거리	0.00	
딸	가족의 적응력	父와의 의사소통	0.48***	0.59
		母와의 의사소통	0.24***	
		母와의 심리적 거리	0.17***	
		母와의 대인거리	0.10**	
		父와의 심리적거리	0.06	
		父와의 대인거리	0.00	

\*  $p < .05$  \*\*  $p < .01$  \*\*\*  $p < .001$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은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부모와 청소년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적응력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은 차이를 보인다. 대인거리에서 부모변인은 父의 연령, 父의 소득수준, 母의 교육수준, 母의 취업여부에서, 자녀변인으로는 父와의 대인거리에서 연령의 효과를 보여주는 학년, 母에게서는 성별, 在學校別이 차이를 나타냈다. 심리적 거리에서는 부모변인으로 父의 연령, 父의 소득수준, 母의 연령, 母의 교육수준, 母의 취업여부가 차이를 가져왔고, 자녀변인으로는 부모 모두에게서 성별과 在學校別이 차이를 가져왔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는 부모변인으로 父의 연령, 父의 소득수준, 父의 직업, 母의 연령이, 자녀변인으로는 부모 모두에게서 성별과 在學校別이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 중에서 가족의 응집성에 가장 큰 독립적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특히 父와의 의사소통이다.

셋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 중에서 가족의 적응력에 가장 큰 독립적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응집성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특히 父와의 의사소통이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자녀는 대체적으로 부모에 대해 가까운 공간적,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며, 의사소통 수준의 개방성도 높은 편이다. 아들보다는

딸이 父보다는 母에게 공간적,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지각하고 있으며, 의사소통도 더 활발히 하고 있다.

둘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의 개방성은 부모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의하여 많이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연령이나 자녀의 성별, 연령 등은 이 변인들에서 나타나는 부모와 자녀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보인다. 이는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가 있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과 변화대처능력에서 부모와의 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자녀와의 갈등이나 문제해결에 있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넷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중에서도 특히 父와의 의사소통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변화의 시기인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상의 결론에 의하면,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의 원만한 부모자녀관계나 정서적 유대, 변화대처 등의 적절한 가족기능화에 대인거리나 심리적 거리가 모두 중요하며, 특히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김순옥(1990). 10대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과 그 귀인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3) 김진숙·유영주(1985). 어머니와 청년기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77-91.
- 4) 노영남(1982).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4), 205-223.
- 5)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서봉연 · 유안진(1982). 인간발달, 서울대학교 출판부.
- 7) 윤진 · 조석미(1980). 가족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한국노년학* 1, 75-85.
- 8) Barnes, H. & Olson, D.H.(1985). Parent Adolescence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9) Beavers, W.(1977). *Psychotherapy and Growth :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N.Y., Brunnt/Mazel.
- 10)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Y., Jason Aronson
- 11) Galvin, K.M. & Brommmel, B.J.(1986), *Family Communication : Cohesion and Change*, Illinois, Scott, Foreman and Co.
- 12) Gerber, G.L. & Kaswan, J.(1971). Expression of Emotion Through Family Grouping Schemata, Distance, and Interpersonal Focu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6, 370-377.
- 13) Gross, I.H., Crandall, E.W. & Knoll, M.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y*, Englewood Cliffs, N.Y., Prentice Hall.
- 14) Hayduck, L.A.(1978). Personal Space : An Evaluative and Orienting Ov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85, 117-134.
- 15) Hess, R. & Hadel, G.(1959). *Family World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16) Larson, J.H. & Lowe, W.(1990). Family Cohesion and Personal Space in Families with Adolescents, *J of Family Issues* 11, 101-108.
- 17)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ssachusetts : HavardUniversity Press.
- 18) Melson, G.F.(1980). *Family and Enviornment : An Ecosystem Perspective*, Burgess Publishing Co.
- 19) Olson, D.G., McCubbin, H.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1982).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N., Univ. of Minnesota.
- 20) Hill, R.D., Blackham, R.E. & Crane, R.(1982). The Effect of the Marital Relationship on Personal Space Orientation in Married Couples. *J of Social Psychology* 118, 23-28.